



'가을잔치' 주인공 4팀 확정되고 이제 남은 것은?

빅리거 3인방 정규 시즌 마무리



KIA 윤석민 SK 김광현

개인 타이틀 마지막 승부

■ 평균자책점

윤석민(2.44)·김광현(2.50) 박빙

■ '홀런왕'

김태균·가르시아 30개 '안갯 속'



롯데 가르시아 한화 김태균

이번주 녹색 그라운드에는 프로야구 개인 타이틀을 향한 마지막 열전이 펼쳐진다.

지난 3월29일 대안원의 막을 연 2008프로야구 정규리그가 내달 5일 SK와 히어로즈와의 문학경기를 끝으로 전체 504경기가 모두 마무리된다.

지난 28일 삼성 라이온즈가 두산 베어스를 10-9로 꺾고, 마지막 남은 '가을잔치'의 티켓을 거머쥐면서 SK·두산·롯데·삼성의 4강 구도가 완성됐다. 하지만 투·타의 자존심을 건 개인 타이틀 경쟁은 시즌 막바지까지 혼전이 예상된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신예 투수 3인방 김광현(SK)·윤석민(KIA)·류현진(한화)의 타이틀 대결이다.

'괴물' 김광현은 29일 현재 16승을 거머쥐며 13승에 머문 윤석민·류현진을 누르고 일찌감치 다승왕을 확정 지은 상태다.

그러나 다승왕을 양보한 윤석민·류현진은 각각 평균자책점 1위와 탈삼진 1위 자리를 지키며, 평균자책점 2위·탈삼진 2위에 랭크 되어 있는 김광현의 3관왕 타이틀을 저지하고 있다.

윤석민의 평균자책점은 2.44, 김광현은 2.50, 김광현이 4이닝만 무실점으로 막는다면 2.43의 평균자책점으로 1위로 치고 오를 수 있다. 3관왕을 위한 김광현의 마지막 등판 상대는 공교롭게도 윤석민이 뛰고 있는 KIA가 될 전망이다.

KIA와 SK는 내달 2·3일 광주에서 맞대결을 펼친다. 김광현의 1위 탈환과 이를 저지하기 위한 윤석민의 한판 승부도 가능하다. 윤석민은 지난 14일 피로 누적으로 2군에 내려갔지만 자존심 회복을 위한 시즌 마지막 등판에 나설 수도 있다.

김광현은 올 시즌 KIA를 상대로 0.67의 평균자책점으로 4승을 챙겼다. 윤석민은 SK전에 단 한차례 등판, 7이닝동안 2실점으로 호투하고도 패만 하나 기록하고 있다. 두 선수의 움직임에 놓고 이번주 무등경기장에 팬들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류현진은 팀 4강 탈락의 충격을 받고 탈삼진왕 고수를 위해 마운드에 오른다.

29일 현재 류현진은 139개의 탈삼진을 기록해 2위 김광현(138개)에 1개차로 근소하게 앞서 있다. 류현진은 30일 두산전에 등판해 삼진 수확에 나선다. 탈삼진왕을 위한 촉하 삼패인은 김광현의 마지막 등판을 지켜 본 뒤에나 생각해 볼 수 있다.

29일 현재 30개의 홀런포를 쏟아낸 한화의 김태균과 롯데의 가르시아는 '홀런왕'을 위한 최후의 일격을 준비하고 있다.

확률상으로는 가르시아가 유리하다. 한화에게 남은 경기는 2경기, 롯데는 4경기를 남겨두고 있다.

산만한 팀 분위기도 가르시아의 '홀런왕'에 무게를 실어준다.

전반기 선두권을 달리던 한화는 올시즌 휴식기 이후 극심한 부진으로 4강에 탈락하면서 충격에 빠졌다. 무서운 뒷심을 과시한 롯데는 2위를 향한 막판 뒤집기까지 노리며 풍성한 가을을 보내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추신수

박찬호

백차승

막판 대활약 타율 0.309 첫 불펜투수 4승4패 2S 6승10패

미국프로야구에서 활약 중인 코리안 빅리거 3인방이 2009년을 향한 희망을 부풀리며 정규 시즌을 마무리했다.

베테랑 박찬호(35·LA 다저스)와 새로운 동지에 안착한 백차승(28·샌디에이고 파드리스), 한국인 두 번째 빅리그 외야수 추신수(26·클리블랜드 인디언스)는 각각 소속팀에서 중간 계투, 5선발투수, 주전 외야수로 뛰고 그라운드를 활발하게 누볐다.

백차승을 제외하고 전원 메이저리그로 강등돼 코리안 빅리거는 어느 해보다 우물하게 한 해를 시작했으나 박찬호가 시즌 개막 나흘 만에 빅리거로 올라오고 지난해 팔꿈치 수술 후 재활에 성공한 추신수가 6월부터 정상 출전하면서 우려했던 한국인 메이저리거 멸종 사태는 사라졌다.

그러나 '잠수함' 김병현(29)이 시범경기에서 평균자책점 14.40의 난조로 피츠버그 파이리츠에서 쫓겨난 뒤 새 팀을 찾지 못해 1년을 폭 쉬었고, 빅리그와 메이저리그를 오간 우투수 류제국(25·탬파베이)도 오른쪽 팔꿈치 뱀조각 제거 수술로 6월 시즌을 접고

내년을 기약했다.

1996년 플타인 메이저리거가 된 뒤 처음으로 불펜 투수로 한 시즌을 보낸 박찬호는 4승4패 2세이브, 평균자책점 3.40으로 시즌을 마쳤다.

지난해 팔꿈치 수술 탓에 아쉽게 베이징 올림픽 야구대표팀 합류가 좌절된 추신수는 소속팀에서 한을 제대로 풀었다.

재활을 마친 뒤 6월에서야 빅리그에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추신수는 94경기에서 타율 0.309(317타수98안타)를 때리고 홈런 14개, 66타점을 기록하며 최고의 시즌을 보냈다.

그는 2004년 최희섭(KIA)이 플로리다와 LA 다저스에서 월 무렵 작성한 한국인 타자 시즌 최다 타점(46개)과 안타(86개)를 모두 새로 쓰고 한국인 간판타자로 자리매김했다.

시애틀 매리너스에서 5월 방출대기조치를 당하고서 샌디에이고 파드리스로 이적한 백차승은 새 팀에서 꾸준히 선발로 뛰면서 2004년 빅리그 데뷔 후 최다승인 6승(10패) 평균자책점 4.79로 시즌을 끝냈다.

마(17:55·MBC ESPN)

▲2008 프로야구(롯데:SK)(18:10·SBS스포츠) (두산:한화)(18:20·Xports·KBS N SPORTS)

10월 1일(수) ▲08/09 UEFA 챔피언스리그 32강 2차전 <울브로: 맨체스터Utd>(03:35·MBC ESPN)

유승민 등 5명 체육훈장 '청룡장'

올림픽 금메달에 빛나는 유승민(삼성생명)과 최은경(동두천시청)이 체육인 최고 영예의 체육훈장을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0일 오후 3시송파구 오룡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체육발전 유공자 66명에 대한 훈·포장 및 표창식을 가질 예정이다.

체육인 최고 영예인 체육훈장 청룡장에는 2004년 아테네올림픽 탁구 남자단식 금메달리스트인 유승민과 2002년 솔

트레이크시티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금메달을 획득한 최은경, 고기현(유학중), 주민진(국가대표팀 코치), 2004년 토리노동계올림픽 금메달을 이끌었던 국가대표팀 박세우 코치 등 5명이 선정됐다.

또 체육훈장 맹호장에는 에베레스트 등반 도중 사망한 산악인 고 오희준씨와 2002년과 2006년 아시안게임 배구 금메달리스트인 신진식, 양재환 나주시청 사 이글 감독 등 8명이 수상하게 됐다.

스페인 알론소 우승

F1 그랑프리 싱가포르 대회

페르난도 알론소(르노·스페인)가 국제자동차경주대회 포뮬러 원(F1) 그랑프리 싱가포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알론소는 지난 28일 밤 싱가포르에서 열린 시즌 15라운드에서 1시간57분16초304의 기록으로 2위 니코 로즈버그(윌리엄스·도요타·독일)를 2.9초 차이로 제쳤다.

지난 해 4승을 거두는 등 랭킹 포인트에서 109점으로 키미 라이코넨(페라리·핀란드)에 1점 뒤진 3위를 차지했던 알론소는 올해

첫 승을 뒤늦게 신고하며 체면을 차렸다. 지난 시즌 맥라렌-메르세데스에서 올해 르노로 팀을 옮긴 알론소는 개인 통산으로는 20승째를 채웠다. 시즌 종합 1위를 달리던 루이스 해밀턴(맥라렌-메르세데스·영국)은 3위로 들어와 랭킹 포인트 6점을 보며 2위 펠리페 마사(페라리·브라질)를 7점 차로 따돌렸다.

이번 대회 전까지 겨우 1점을 앞섰던 해밀턴은 마사가 13위로 점수를 추가하지 못하는 틈을 타 선두 굳히기에 들어갔다. 팀 순위에서는 맥라렌-메르세데스가 135점, 페라리가 134점으로 치열한 선두 경쟁을 계속했다. 올 시즌 전체 18라운드 가운데 16라운드 경기는 10월12일 일본 도쿄 후지 스피드웨이에서 열린다.



30일(화)

▲2008 WNBA 동부컨퍼런스 결승 3차전 <뉴욕: 디트로이트>(08:00·SBS스포츠) ▲2008 일본프로야구(요미우리: 요코하

Advertisement for 'Small Business Big Opportunity' (작은만남 큰기쁨) featuring various local businesses and services in Gwangju.